

아산군 영인면 월선리에는 통훈대부를 지내신 이규풍 장군의 묘가 지금도 위엄스레 안치되어 있다.

이규풍장군은 덕수 이씨로 휘는 규풍이요, 호는 위풍, 자는 탁서이다. 서기 1877년 11월 2일 서울 목동에서 통정대부 정삼품 화순군수 이도희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용감했고 슬기로웠으며 무술에도 남다른 뛰어남을 보여 동네 사람들은 크게 될 인물이라고 칭찬이 자자했다.

그가 17세에 되었을 때다. 그는 갑술과에 응시하기 위해 많은 무술을 익히고 밤엔 호롱불을 밝히며 열심히 책을 읽었다.

경시 날짜가 이틀로 다가 왔을때 규풍은 내일 집을 떠나 서울로 가리라 하는 마음을 먹으면서 그날 저녁엔 여느 때보다도 단정한 몸가짐으로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아직도 희미한 새벽의 여명이 커다란 규풍의 집을 에어싸고 있을 때 그는 아버님을 뵈고는 길 떠날 인사를 여쭙었다.

"아버님, 소자 꼭 합격하여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냐, 여지껏 닦아온 너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우리 가문을 빛내도록 하여라. 난 네가 꼭 장원하리라 믿는다. 그렇다고 너무 자만심을 가지지는 말도록 해라. 혹, 떨어지는 날엔 이집 때문에 한 발자국도 들어 놓지 못할 것이니 그런 줄 알도록 하여라. 알았느냐?"

"예, 아버님 명심 하겠습니다. 소자 그럼..... 다녀 오겠습니다." 규풍은 아버님께 인사를 드린 후 꼭 갑술과에 급제 하리라고 다짐하며 온몸에 힘을 주었다.

며칠 후 발표가 있었고 규풍은 갑술과에 합격하였음은 물론이었다.

"대감마님! 도련님께서 돌아 오십니다요~." 동구밖에서 부터 외쳐대는 쇠돌이 녀석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도 크고도 맑았다. 이미 소식을 듣고 기쁨을 금치 못하고 있는 규풍의 아버지는 집안의 커다란 경사에 만면에 웃음을 띠곤 수영을 쓰다듬으며 아들맞을 재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님, 소자 이제야 돌아 왔습니다. 문안 드리웁니다. 그간 별고 없으셨는지요?"

"오냐 규풍아, 자랑스럽구나! 내 이 이상 기쁨 수가 없구나 하하하....."

"모두가 어머니 아버님의 영려덕분이옵니다."

"애야, 무슨 소리냐. 모두가 네가 애쓴 보람이 아니더냐 예구 장한 것....."하며 규풍의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웃고름으로 닦아 내셨다.

"아니, 당신도 이렇게 기쁜 날 눈물을 보여서야 되겠소? 안 그러냐 규풍아?"

"너무 기뻐서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 규풍이가 장해서요....." 하며 규풍의 어머니는 말꼬리를 흐리셨다. 이렇듯 기쁨을 나눈 후 규풍의 어머니는 말꼬리를 흐리셨다. 이렇듯 기쁨을 나눈 후 규풍의 아버지는 음성을 가다듬어 "규풍아 국내 정세가 어지러운 이 때 사내 대장부답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해라. 모름지기 사내란 끝과 맺음이 있어야 하는 법, 궁성 내직에 봉직하면서 공과 사는 반드시 구별하며 네 소신껏 맡은 바 일에 충직하도록 해라." "예, 아버님 명심 하겠습니다. 결코 가문을 더럽히는 일은 하지 않겠사오며 나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규풍은 비범한 재질과 대의에 관하여 움직이지 않는 굳센 기강으로 충성을 다했다. 그분에 대한 성품이 잘 나타나 있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장군의 나이 45세때의 일이다. 부인의 병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빠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여덟살쯤 되어 보이는 한 아이가 길바닥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아이를 힐끔 쳐다 볼 뿐 누구 하나 그 아이에게 친절을 보이지는 않았다. 장군은 가까이 가 우는 아이를 달래며 "애야 왜 그러느냐? 어디에 살고 있는냐?" 부드럽게 달래자 아이는 조금 후에야 울음을 그치며 "집을 잃었어요. 아저씨!" 하곤 또다시 울먹였다. 장군은 난처했다. 집에선 부인이 위독한 증상으로 남편을 찾고 있을 터인데..... 그렇다고 이 불쌍한 아이를 두고 그냥 메몰차게 갈 수도 없는 일이다. 장군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만 무슨 결심을 한 듯 우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꼬마야 울지 마라 이 아저씨가 너의 집을 찾아 줄 테니 자 걱정 말고 울음을 그쳐라." 장군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곳 저곳을 다니며 아이의 집을 찾기 시작했다.

약 10리쯤 가서야 겨우 그 아이의 집을 물어 찾을 수 있었다. 집은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에 파리한 모습으로 아이의 엄마는 누워 앓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저 안에 누구 계신지요." "게 뉘요. 누가 왔소?" 조그만 방문 안에서 힘겨운 여인네의 대답이 울리며 문이 열렸다.

"엄마—"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방문 앞으로 뛰어 갔다. "아니 석아. 너 돌아 왔구나! 어떻게 용케도 찾아왔어. 아이고 이놈의 자식" 여인네의 꺼칠한 두 손이 아들의 얼굴이며 머리를 어루만지며 흐느꼈다. 잠시 후 여인은 울음을 그친 후 장군께 "뉘신지는 모르겠사오나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저 감사합니다. 누추하지만 잠시 드시지요." "아 아닙니다. 저는 갈길이 바빠서....."

"나으리 잠깐만 드시지요. 어떻게 그냥 가실 수 있습니까?" "어허 이거야....." 장군은 부인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며 난처해 하다 마지못해 방엘 잠깐 들어갔다. 여인은 짐사정을 대강 다음과 같이 털어 놓았다.

"애 아버지가 장사하러 떠난지가 몇날 며칠이 지났건만 소식한자 없고 쌀은 떨어져 아이에게 밥을 못해주고 있었읍지요. 소인이 하도 답답해 제 아버지를 원망하였더니 그 소리를 들은 저애가 아버지를 찾겠다고 소인몰래 집을 나갔던 것입니다. 해가 저물도록 찾아 헤맸으나 찾지 못하고 이렇게 체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정을 듣고난 장군은 그냥 올 수 없어서 호주머니를 털어 한사코 사양하는 그 여인네에게 건네주곤 그곳을 나왔다. 그런 후 급히 집에 와보니 다행히 부인은 위독한 고비를 넘기고 얼굴에 혈기가 돌고 있었다. 부인에게 무척이나 미안한 일이었지만 자신의 일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부인 또한 이해심이 많아 남편의 그런 성품을 탓하지는 않았다. 을사조약이 불법으로 체결되어 국권이 상실되었을때 장군은 황제의 밀조를 받들어 개연히 일어났다.

권유상, 이교수 등과 아라사로 가서는 그곳에서 이범륜, 최재형 등과 의병을 일으켜 대장으로 추대된 후 좌장군 안중근, 우장군 강만국 등과 군사를 영솔하고 함경북도 육진에서 의병을 도륙하였다. 이 때에 광무황제는 특명으로 창의 대장을 제수하였다. 그리고 1910년에 아라사에서 이상철, 유인석, 이범진, 이범륜, 정순만 등과 '만인 공동회'를 조직하고 일제의 잔악 무도한 침략 행동을 세계에 호소, 선포하며 울납간에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3.1운동 이후에 주진수, 최소수 등과 중국 만주에 와서 양기택, 김좌진, 정이형, 라동락등과 '고려혁명당'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국내외로 파견한 동지들이 왜적에게 체포되어 학살됐다는 비보를 접하자 울분을 금하지 못하더니 졸연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그날이 1931년 6월 1일 중국 우잔에서 장군은 그렇게 순국하셨다.

"동지들! 나는 비록 조국의 독립을 못보고 가지만 동지들께서 내 못다한 뜻을 대신하여 열심히 싸워 조국의 독립을 기필코 이루도록 하시오."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이규풍 장군은 이국땅에서 숨을 거두신 것이다.

후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 투쟁으로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을 하였다. 이렇듯이 선인들의 피가 흘린 우리의 귀중한 강산! 더욱더 아끼고 사랑해야 겠으며, 정진하는 국민으로 하루 바빠 선진국 대열에 끼어 선인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더욱더 학업에 몰두하여 귀중한 우리의 이 강산을 가꾸고 다듬는 데에 선열께 부끄럽지 않게 해나가야 되리라 다짐한다.